

#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되는 방법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세상 안에서 파고들기

- 닉 랜팅가

인터뷰어 최용준 (한동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빈익 회회장 (사원반역동사)

한동대에서 교환교수로 섬기고 있는  
닉 랜팅가(Nick Lantinga)를 동역회 실행위원인 최용  
준 교수(한동대)가 만났다.



**Question** 최용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닉 랜팅가 저는 네덜란드에서 미국 중서부 지방으로 이주해온 이민 3세대로, 랜팅가 레이와 랜팅가 베스의 장남입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이후 개혁적 전통이 강한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성, 그리고 가족, 교회,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이후 저의 전문 분야를 키워 나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빈대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은 뒤, 시카고의 한 카톨릭 대학원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이 기간에 매우 다양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저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 분야에서 일하다가 2002년 국제기독교고등교육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이하 IAPCHE)에서 국제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Question** 최용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고등교육에 흥미를 가지면서 국제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Answer** 닉 랜팅가 맞습니다. IAPCHE는 1975년에 전 세계의 개혁신앙 교수들을 위한 학문적 공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신카이퍼주의자들(neo-Kuyperians)를 위한 소수집단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2002년 여름, 이 단체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카이퍼의 통찰력이 맞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적 전통과 문화들 또한 설득력이 강하기에 오히려 국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9년간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생각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중 한국은 IAPCHE를 홍보하기 위해 방문한 첫 번째 나라로, 백석, 홍신, 흥신, 한동, 고신대를 포함해 여러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Question 최용준 IAPCHE 키퍼린스의 핵심이 궁금합니다.

Answer 님 랜팅가 IAPCHE는 설립 이래 3년마다 주요한 국제 키퍼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2002년경 IAPCHE 회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역별 군소 키퍼린스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군소 키퍼린스를 통해 지역적으로 보다 긴밀한 문제들과 이슈를 다루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국제이단, 지역별이단은 관계없이 모든 IAPCHE 키퍼린스들은 기독교적 관점의 학문과 고등교육 교수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uestion 최용준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무엇인지, 기독교 고등교육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님 랜팅가 먼저 우리는 세속화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오래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르쿠스(Rober Markus)에 의하면 라틴어 "Saeculum"은 성 어거스틴에 의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변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을 "saeculum"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 "secular"(세속적인, 세속적인)라는 영어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속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아 선지자가 그 했던 것처럼 세상의 좋은 짐을 찾아내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을 명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피조물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시야 28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통해 타락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9세기 슬라비아어머의 가르침 이후, 세속화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신학자는 지식인층의 기독교 탐입에 맞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 감정의 영역에 종교를 "기쁨으로" 기독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종래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영지주의의 이런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 세상의 좋은 짐을 찾아내야 합니다.”

문적 경향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반은 파우스트적 가래(악마와의 거래)에,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와의 내면적 경험에 집중하였습니다. 몇몇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내면적 경험을 오히려 믿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신학적 자유주의를 수용하여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보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모두 교회와 기독교 고등교육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나 내면에 진지한 신념이 없는 지식인들, 이들이 바로 기독교 고등교육을 세속화시킨 주범입니다.



Question 최용준 현시대 세속화의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Answer 님 랜팅가 최근 저는 기독교 내에서 새로운 활력, 강한 희망의 기운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기독교대학 성장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독교 고등교육은 현재 전례 없는 제3의 거대한 성장의 파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관의 설립은 우리가 솔라이 어머허의 이원주의를 몰아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자유주의보다는 복음주의적 측면에서 더 많은 희망을 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좌파" 나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종교라는 영역에 국한시키고 공적인 삶에서는 배제하는 포스트모던적 철학적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알

빈 플랜팅가(Avin Plantinga),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 세대에 의지하여 문화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 세대가 허락한 영역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코헨(Mike Coheen)이나 제이미 스미스(Jamie Smith) 같은 사상가들은 모든 사물에 대한 기독교의 다양한 관점을 흥미롭게 설명하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아돌포 가르시아 드라 시엔라(Adolfo Garcia de la Sienra)가 그랬듯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학술적 영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악마와 거래하지 않고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해방된 공간을 공유한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서구 세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 기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이 간과한 종래한 문제점은 이들의 성장이 보다 깊은 기독교적 성찰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보통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며, 두 가지 형태의 유혹이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정부의 자금 제공 동력 프로그램을 허락하려는 지속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학계의 지도자들은 지역 내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정부 자금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연결고리가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교수들을 학생 서비스 분야에서 교환 가능한 구성품으로 간주하려는 유혹입니다. 한 기독교대학의 학장이 "모든 교수는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몹시"에 조직적으로 규정된 "직업"으로부터 학생들의 영적 형성은 별도로 제거됨으로써 이중적인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최용준 **세속화 외에 국제적으로 또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님 랜팅가 모든 문제들은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단순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실패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 없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향한 무관심, 사랑 없는 마음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의 번영을 최대화하기 위한 삶의 방식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패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라는 질문, 곧 그리스도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최용준 **교수님께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시고자**

Answer 님 랜팅가 제 관심은 두 가지로, 다소 대립적인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부족 단위에서부터 지역적 단위에 이르기 까지 서로 다른 문화들이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 속에 구현해내는지를 함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는 시편 찬송가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전통이 대부분 배수되지 못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영역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두 명의 한동대학교 동료와 카이퍼적 "시각"을 갖고, 고등교육에 대한 소크라테스적인 접근과 유교적 접근의 교차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관심사들은 저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문화를 넘나들며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독교 고등교육의 관리와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엘 카펜터(Joel Carpenter), 페리 글랜저(Perry Glanzer)와 제가 공동 집필한 세계의 기독교 고등교육에 관한 논문이 내년 1월 어드만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범세계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세계주의는 어떠한 통제도 없이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을 한 곳에 모으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에 의존합니다. 유명한 언어들을 한데 모아 탄생시킨 에스페란토(Esperanto)



Question 최용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성숙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swer 님 랜팅가 초기에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통합된 문화이자 동부아시아에서 장구한 역사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닌 가장 놀라운 자원 중 하나는 바로 스승과 권위자를 향한 뿌리 깊은 존중 의식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반기문 총장과 같이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기여하거나 기독교 공동체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기독교 고등교육이 순전한 기독교적 접근을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이 일들의 기반이 되는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최용준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